

교통물가까지 꺾충...주름 깊은 서민 가계

3월 휘발유값 전달보다 12.4%·LPG는 15.8% 올라 교통물가 전년비 6.4%↑...자동차 가격도 줄줄이 인상

경유·LPG(액화석유가스) 등 교통물가 상승세에 서민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줄곧 하락세였던 경차 가격도 최근 오름세를 나타냈다. 경제성이 뛰어나 운전자들이 애용하는 경차와 연료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20일 통계청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해 4년9개월 만에 큰 폭으로 뛰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교통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4%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물가상승 기여도도 0.68%포인트 올라 12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경유 가격은 전년 동월에 비해 18.2% 올랐다. 2월(18.5%)에 이어 두 달 연속 20%에 가까운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가격이 떨어지던 LPG는 지난 2월(4.2%)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달에는 15.8%나 가격이 올라

도 오름세가 이어졌다.

3월 경차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11월(7.1%) 이후 가격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대형승용차와 중형승용차 가격도 각각 4.2%, 2.6%씩 올라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와 LPG 가격 상승은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가격도 오름세를 기록 중에 있어 교통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특히 지난달 가격 상승률은 2011년 9월(20.2%) 이후 5년 반 만에 최고치다. 휘발유 가격도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12.4% 올랐다. 지난해 12월부터 넉달 연속 상승 중이다.

여기에 3월 들어 경유와 LPG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를 크게 웃돌았다. 경유와 LPG 연료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이 오르고 있는 셈이다.

일부 자동차 가격도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경차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차값은 지난 1월까지 1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2월 4.8% 상승했고 3월에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9.15 (+10.75)	금리 (국고채 3년) 1.67% (0.00)
↓ 코스닥 635.80 (-0.19)	↓ 환율 (USD) 1139.80원 (-0.40)



교육·교통의 중심 ‘화정엘리체 퍼스티지’

서진종합건설 218세대 공급...전분주택 오픈 분양 시작

중대형 고품격 주거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화정엘리체 퍼스티지 전분주택이 21일 오픈, 본격 분양에 나선다.

서진종합건설이 월드컵경기장 맞은편 광주시 서구 화정동 412-9번지 외 43필지에 짓는 화정엘리체 퍼스티지는 지하2층~지상 23층으로 84㎡, 110㎡, 218㎡ 총 218세대로 최소가치 높이는 42평형 특화설계와 4베이 4룸 설계로 구성됐다. <투시도>

화정엘리체 퍼스티지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광주를 대표하는 완벽한 주거 입지에 탄생한다. 단지 바로 옆 친환경 근린공원과 단지 앞에는 고품격 주거지의 대명사인 광주 월드컵경기장이 위치해 있으며 광주 실내체육관과 염주체육공원, 풍암호수공원과 풍암생태체육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환경 또한 좋다. 반경 150m 거리에 화정남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화정중, 금호중, 서석고, 광주여고 등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단지 앞 월드컵 경기장 내에 있는 롯데마트 월드컵점, 미래로 21병원, 각종 금융기관과 광공사는 입주민들의 편리하고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사생활도 편리한 교통망도 장점이다. 서광주 IC, 제 2순환고속도로, 광주버스터미널, 상무대로, KTX광주승정역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어디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전 세대가 일반분양 형태로 공급되며 공공택지지구가 아닌 민간택지지구이므로 전매제한없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2019년 4월에 입주 예정이며 전분주택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 536-6번지 (주)서진종합건설 분사 1층에 위치한다. 문의 062-573-4400.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세관 수산물업체 FTA 수출 지원

원산지 간편인증제 안내 등 수출업체 맞춤형 컨설팅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28일까지 10일 동안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관에서 지역 수산물업체를 대상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지원에 나선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월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조직이 신설되어 수출입업체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이 FTA 및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기업지원 업무에 돌입했다.

이번 홍보기간 중에는 ‘FTA 원산지 간편인증제도’ 등을 안내함으로써 FTA 해

택의 사각지대인 수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FTA 미활용 수출업체를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FTA 전문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승권 광주본부세관장은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수출입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상의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중단해야”

“독자 특허·기술 경쟁국 유출 안돼”...재입찰 촉구 성명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시, 시의회 등이 금호타이어 중국매각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잇달아 표명하고 차기 정부에서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상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역 경제는 국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와 형식적 요건만을 고수하며 사실상 외국기업으로 매각하려는 주주협의회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성명서에서 “금호타이어의

외국기업으로의 매각은 지역경제와 1만 200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며, 타이어 업계의 유일한 방위산업체가 확보한 870여개의 독자 특허와 기술들이 경쟁국에 유출됨으로써 국가안보와 자국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위협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어 “우선매수권자에게 더블스타와 동등한 조건의 컨소시엄 구성과 재입찰 진행, 차기 정부에서 매각 재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국책은행이 주도하는 주주협의회가 매각원칙만을 고집해 더블스타와의 협상을 강행한다면, 국가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책무를 망각하는 것으로 지역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상의는 이날 성명서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5개정당 대표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주재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와 같은 지역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광주시도 윤정현 시장 이름으로 낸 ‘금

호타이어 매각 사태와 관련한 광주시 입장에서 “매각과 관련한 채권단의 입장과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우리가 현실이 될 것 이란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금호타이어 매각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기업과 금융기관 간에 벌어지는 사적 경제영역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채권단은 국정의 공백 상태에서 국가적 원칙이나 합의 없이 벌어지는 협상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와 방산업체 보호, 국가 기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효성 ‘무슬림 웨어’ 시장 공략

5년 연속 인도 섬유·의류기계 전시회 참가

효성은 19~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현지 최대 섬유·섬유기계 전시회인 ‘인도 인터텍스(Indo Intertext) - 제15회 인도네시아 국제 섬유·의류기계·엑세서리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부터 5년 연속 참가한 효성은 원사업체로서는 메인 전시장에 가장 큰 부스를 차렸다. 인구 2억5000만명 중 87%가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는 중산층 증가, 도시화로 의류 소비성향이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에슬레저’(athleisure)트렌드가 반영된 ‘무슬림스포츠웨어’가 새로운 시장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효성은 전시회 기간 현지 무슬림웨어 브랜드인 ‘샤스미라(Shasmira)’, 글로벌 데님 브랜드인 ‘리 쿠퍼(Lee Cooper)’ 등 유명 의류 브랜드와 함께 패션쇼를 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임야 ◆ 샵니다
신속 / 당일처리!
(주)오천개발
H. 010-3605-5000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급매 - 1억 500만원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50만원 가능
- 주인직매
H. 010-8902-7900

나주, 남평읍 토지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계획관리지역
-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60 ~ 100 만원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 장기투자 최고물건
- 주인직매
H.010-3605-5000

오천경매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상담예약 필수!

담당 최 선 규
H. 010-3605-5000